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 효과

Received: April 15, 2021
Revised: July 13, 2021
Accepted: August 13, 2021

소찬은¹, 한세영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학생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²

교신저자: 한세영
이화여자대학 아동학과
(07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he Effects of Warm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Deliberate Rumination

E-MAIL:
evenhow@ewha.ac.kr

Chan-Eun So¹, Sae-Young Han²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ter’s
degree¹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 Copyright 20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만 24세 이하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외상 사건과 외상 후 성장,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 그리고 그들이 인식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자녀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를 통해서도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더 많은 의도적 반추를 하여 외상 후 성장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교육·상담·돌봄 현장에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제공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외상 후 성장, 온정적 양육태도,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

Frazier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외상을 경험한다. 외상(trauma)이란 충격적인 사건 이후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처를 의미하며(권석만, 2013), 외상에 따른 대표적 결과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진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는 외상 사건 경험을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에의 노출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경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사항에 반복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APA, 2013).

그러나 DSM-5에서 정의한 외상을 개인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외상과 같다고 판단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존재해왔다. 외상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과 개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실제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DSM 진단기준은 충족하지 않는 사건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직업의 상실, 과업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등도 큰 심리적 어려움을 불러일으킴을 밝혀왔다(Bodkin et al., 2007; Gold et al., 2005; Robinson & Larson, 2010).

외상 경험에 따라 개인이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다. 이를 겪는 개인은 외상 사건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외상 사건과 관련된 단서들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며,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 왜곡된 인지를 나타내며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APA, 2013).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외상 사건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는 대비되는, 외상 사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란 삶의 위기를 겪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적응능력, 삶에 대한 인식 수준이 외상 사건 경험 이전보다 더 발전한 상태가 되고 스스로 이를 지각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뜻한다(Maercker & Zoellner, 2004; Tedeschi & Calhoun 1996).

외상 후 성장에 선행하는 외상은 그것을 경험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심리적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험으로 정의되며(Tedeschi & Calhoun, 1995), 단순히 사건의 특성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외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보다는, 그것을 경험한 개인의 지각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외상이 아닐 수 있는 사건도 누군가에게는 외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개인의 주관적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외상 후 성장에서 외상을 경험한 이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객관적으로는 외상이라고 불릴만한 사건을 경험했다라도 그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타격을 받았다고 지각하지 않는다면 사건에의 대처 필요성도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신선영,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외상을 논할 때 경험 당시 개인의 주관적 고통을 기준 삼았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통을 느낀 이후 이룬 성장만을 외상 후 성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지각이 곧바로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희정, 2018). 외상으로 인한 고통의 지각이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근접한 외부로부터의 지지, 정서의 조절, 경험

한 것에 대한 반추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lhoun & Tedeschi, 2006).

본 연구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에서도 부모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대학생의 경우, 또래 친구나 연인도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외부 자원이나,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대학생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아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은 미성년에서 성년으로의 변화를 이루는 시기인 동시에 아직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이루지 못하여 부모의 규제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성취하려는 투쟁의 시기에 속한다(이수정, 이은진, 2002).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와 같은 특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가정하였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외상을 겪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불어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이 외상 후 성장에 필요한 정서 인식 및 반추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알아 보았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

Calhoun와 Tedeschi(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사회문화적인 환경 요인은 개인의 정서적 능력 및 인지적 능력과 상호작용하면서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은 자녀가 생의 전반에 걸쳐 직접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람직한 양육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요인이다. 안정감, 애정, 따뜻함 등을 제공하는 온정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외상 사건 경험 후에도 그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지지원으로 인식된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아는 자녀는 외상 사건 경험으로 유발된 부정적 정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사한 개념을 통해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추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김정옥, 윤재호, 2017; 신선영, 2009; 유희정, 2018; Xu et al., 2019).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지원을 의미한다는 점(신혜정, 서영석, 2006; Dubow & Tisak, 1989)과 부모가 사회적 지지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족 지지원에 해당한다는 점(박지원, 1985)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 간 관계 추론에 참고할 수 있다(김상근, 이정운, 2019; Yuan et al., 2018; Zhou et al., 2019). 애착이란 개인이 친밀한 타인, 특히 어린 시절에는 주 양육자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뜻한다(Bowlby, 196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질적으로 우수할수록,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경험이 깊어질수록 자녀는 부모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발달시킬 수 있다. 생의 초기에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영향력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유지되며(Bowlby, 1973; Collins

& Read, 1994; Main et al., 1985), 안정적인 애착을 발달시킨 개인은 외상 사건에 대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Mikulincer & Florian, 1998). 그리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허진선 외, 2016; Koehn & Kerns, 2018). 이처럼 자녀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는 부모의 특징과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특징 간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결과들을 외상 후 성장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적 역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과 같은 정서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 먼저, 정서인식명확성의 상위변인인 정서 지능은 온전히 타고나기보다는 학습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Caruso et al., 2015). 개인의 정서 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Saul(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정서 양식은 기질에만 의한 것이 아니며,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건강하게 형성되고 유지된다. 부모가 온정적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정서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자녀는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에 대한 호기심도 가질 수 없어 정서에 대한 통찰 능력을 갖추는 일에도 방해받는다(박종수, 2013). 다양한 선행연구(김신실, 유금란, 2014; 김혜원, 이지연, 2019; 하

영자, 2001)는 부모의 따뜻한 양육을 받은 자녀가 높은 수준의 정서 인식 능력을 발달시켰음을 밝혀,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역량 중에서도 정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한편,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고통을 일으킨 내적 신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신념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정서적 과정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과정은 외상 사건 경험으로 인해 생겨난 정서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촉진제 기능을 하여 개인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작업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Foshua(2009)도 정서의 인식이 활성화될 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활력과 에너지가 방출되어 개인이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정서 인식을 명확히 할수록 부정적 기분에서 회복이 빠르고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다(Goldman et al., 1996). 더불어 정서인식명확성이 개인의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서 인식은 외상 후 성장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여명, 박철옥, 2017; 송현, 이영순, 2012, 2017,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적 역할

나아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녀의 인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의도적 반추가 활성화되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변인이기 때문이다(김정옥, 윤재호, 2017; 송현, 이영순, 2018; 신선영, 2009; 유희정, 2018; Kilmer & Gil-Rivas, 2010; Munday et al. 2019; Taku et al., 2012; Xu et al., 2019). 개인은 의도적 반추를 하면서 경험한 외상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핵심 신념을 외상 사건의 발생에 따라 달라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낸다(Cann et al., 2011). 인지 적응 이론을 정립한 Taylor(1983) 역시 외상 후 성장은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에서 촉발되며, 이러한 욕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때 개인이 외상 사건 경험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인지적인 대처 과정이 의도적 반추라고 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의도적 반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개인은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도적 반추에 개인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Kilmer와 Gil-Rivas(2010)가 외상 사건에 대한 양육자의 긍정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이 자녀의 의도적 반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지만, 부모의 양육 요인과 자녀의 의도적 반추 과정에 분명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연구는 적다. 이렇듯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의도적 반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부족하지만,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의도적 반추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사한 개념인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및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개인의 의도적 반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김상근, 이정윤, 2019; 김정호, 윤재호, 2017; 유희정, 2015, 2018; Sheikh, 2004; Weiss, 2002; Zhou et al., 2019) 개인은 외부의 지지를 지각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한 해석을 덜 충격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식을 가지려는 자발성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제공하는 지지적인 환경에서 수용과 신뢰의 경험을 쌓은 자녀는 그가 겪은 외상 사건을 객관적으로 회고하고, 긍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장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녀의 의도적 반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변인 간 관계를 증명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의 관계

한편,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가 각각 부모의 영향을 받아 촉진되고 외상 후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은 추론할 수 있지만, 두 요인 간 관계도 존재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의 관계는 연구된 바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이 의도적 반추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송현, 이영순, 2018), 반추를 매개로 하는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개인의 인지적 경로와 정서적 경로가 독립적임을 확인한 연구결과도 있었다(이지영, 2014). 해외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상관이 높은 정서지능이 의도적 반추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Munday et al., 2019), 전반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의도적 반추를 예측한다는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개별적으로 향상되고, 각각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외상 후 성장에는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닌 사회 환경적·정서적·인지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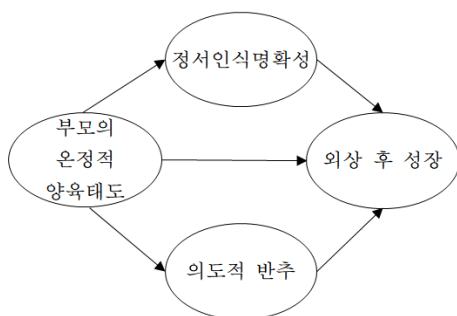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외상 경험이 있으며, 외상 경험 당시의 심리적 고통의 정도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만 24세 이하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학년 구성은 1학년 54명(17.1%), 2학년 94명(29.7%), 3학년 69명(21.8%), 4학년 99명(31.3%)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외상 경험 질문지

송승훈(2007)이 사용하고 신선영(2009)이 보완한 질문지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살면서 경험한 외상 사건의 종류와 발생 시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당시 및 최근의 고통 정도를 측정하였다. 외상 경험의 종류는 사고 및 상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적응의 어려움, 학업/과업 문제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질문지에 제시되지 않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응답자가 외상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응답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포함하였다.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는 7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4점: 보통, 7점: 매우 고통스러웠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강하게 느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영(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통을 느낀 이후 이룬 성장만을 외상 후 성장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외상 경험으로 인한 당시의 고통 정도를 3점 이하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1991)가 개발한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권순명(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수용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예: 나에게 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겁이 날 때나 걱정이 있을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신다)이 온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문항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을 기반으로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어머니 .95, 아버지 .96, 전체 .97이었다(표 2).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은 Salovey et al.(1995)가 개발한 Trait Meta-Mood Scale을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의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개선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의 명확성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예: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을 사용하여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였다. 4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의도적 반추

외상 경험에 대한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alhoun et al.(2000)이 개발한 Rumination

Scale을 신선영(200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하위요인 중 의도적 반추에 해당하는 문항(예: 나는 그 경험을 이해해보려고 했다, 나는 그 경험에서 어떤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5개를 외상 경험 당시와 최근 2주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7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의도적 반추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외상 경험 당시 .78, 최근 2주 .87이었다.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를 송승훈(2007)이 수정·번안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예: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은 6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 6점: 매우 많이 경험했다)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자기지각의 변화 .90,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87,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74,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68, 전체 .92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0년 6월부터 7

월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도구를 Google form으로 작성하여 온라인 대학교 커뮤니티와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포 시에는 만 24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응답 시 유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회수된 331부의 설문지 중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통의 점수를 3점 이하로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총 3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하여 연구대상의 외상 경험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연구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외상 사건의 유형 및 발생 시점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외상의 유형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 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유형은 적응의 어려움(학교·사회·군대에서 소외, 따돌림 등)(20.3%)이었다. 이어 학업, 과업 문제(낙방, 실패, 좌절 등)(13.3%), 대인관계 파탄(이별, 실연, 절교 등)(13.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외상 사건의 발생 시점은 응답 당시를 기준으로 3년~10년 전(40.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2년 전(23.4%), 2년~3년 전(12.0%), 10년~20년 전(7.3%), 7개월~12개월 전(6.6%), 6개월 이내(5.4%), 한 달 이내(5.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변인 간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고,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정서인식명확성($r = .37, p < .001$), 의도적 반추($r = .16, p < .01$), 외상 후 성장($r = .43,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 수준도 높았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r = .28, p < .001$),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r = .57, p < .0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N = 316)

변인	1	2	3	4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2. 정서인식명확성	.37***	-		
3. 의도적 반추	.16**	-.04	-	
4. 외상 후 성장	.43***	.28***	.57***	-
M	2.93	2.75	4.20	3.65
SD	0.76	0.55	1.46	1.09
왜도	-.56	-.36	-.27	-.26
첨도	-.37	.17	-.60	-.49

** $p < .01$, *** $p < .001$.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67.33(df = 22, p < .001)$, $\chi^2/df = 3.06$, NFI = .94, TLI = .94, CFI = .96, RMSEA = .08(90% CI = .06, .10)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인에서 측정

변인으로서의 회귀계수는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40 ~ .93으로 나타나 변수를 측정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성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구모형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표 2.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N = 316)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母 온정적 양육태도	1.00	.89		
	父 온정적 양육태도	.91	.71	.10	9.10***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	1.00			
	당시 반추	1.00	.82		
의도적 반추	최근 반추	.84	.82	.09	12.41***
	자가지각의 변화	1.00	.93		
외상 후 성장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84	.74	.05	16.11***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84	.80	.05	18.20***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43	.40	.07	6.54***

*** $p < .001$.

분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 모델은 남녀 간 계수가 다르고, 제약모델에서는 남녀 간 계수가 같도록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 모델의 적합도는 $\chi^2 = 106.94(df = 46, p < .001)$, $\chi^2/df = 2.33$, NFI = .91, TLI = .95, CFI = .95, RMSEA = .07(90% CI = .05, .08), 제약모델의 적합도는 $\chi^2 = 110.71(df = 51, p < .001)$, $\chi^2/df = 2.17$, NFI = .91, TLI = .93, CFI = .95, RMSEA = .06(90% CI = .05, .08)로 적절하였다.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을 비교해본 결과, $\Delta\chi^2 = 3.78$, $\Delta df = 5$, $p > .05$ 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뜻한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정서인식명확성 및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변인 간 경로 분석 결과는 표 3,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

로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c = .28, p < .001$).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의하였고($a_1 = .47, p < .001$),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정적 영향도 유의하였다($b_1 = .24, p < .001$). 즉, 부모의 양육이 온정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녀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외상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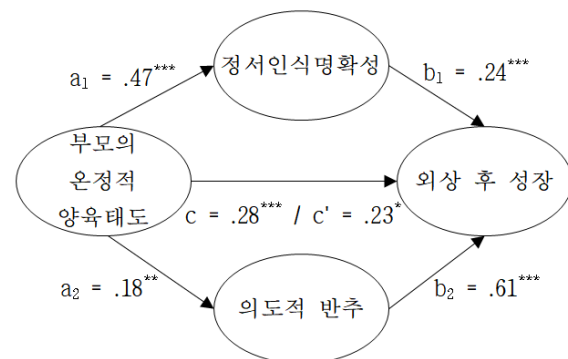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 모형

표 3.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N = 316)

잠재변인 간 경로	b	β	S.E.	C.R.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정서인식명확성	.39	.47	.06	6.85***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의도적 반추	.43	.18	.16	2.67**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외상 후 성장	.56	.28	.12	4.85***
정서인식명확성 → 외상 후 성장	.58	.24	.13	4.33***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52	.61	.05	10.77***

** $p < .01$, *** $p < .001$.

성장 수준이 높았다. 이어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의도적 반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a_2 = .18, p < .01$),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정적 영향도 유의하였다($b_2 = .61, p < .001$).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는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하였고, 자녀가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도 높았다.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 = .23, p < .05$). 이어, 다중상관자승을 통해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정서인식명확성

을 22%, 의도적 반추를 3% 설명하였으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의도적 반추는 함께 외상 후 성장을 66% 설명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 각각의 개별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팬텀변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인식명확성($\beta = .11, p < .05$)과 의도적 반추($\beta = .11, p < .05$) 각각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표 4).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초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그들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이라고 인식할수

표 4.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개별 간접효과($N = 316$)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정서인식명확성	.47*		.47*	.22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의도적 반추	.18*		.18*	.03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외상 후 성장	.28**	.23*	.51*	
정서인식명확성 → 외상 후 성장	.24*		.24*	.66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61**		.61**	
경로		간접효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정서인식명확성 → 외상 후 성장		.11*	.10~.36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11*	.02~.43	

* $p < .05$. ** $p < .01$.

록 자녀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자녀가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상근, 이정윤, 2019; Yuan et al., 2018; Zhou et al., 2019)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들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선행연구(위대봉, 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녀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제공해주는 부모의 양육이 자녀에게 외상 사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의 언어와 행동을 수용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지원이 되어 외상 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 자녀가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었더라도 부모로부터 온정적인 양육을 받는다면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상 후 성장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의 온정적인 양육을 제공할수록 자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을수록 정서 인식을 더 잘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들(김신실, 유금란, 2014; 김혜원, 이지연, 2019; 위대봉, 2015; 하영자, 2001)을 재증명하는 결과이다. 자녀는 부모가 그의 정서를 수용해주는 경험을 통해 안정된 상

태에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 인식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가 무시되기보다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서가 가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이에 따라 자녀는 스스로의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도 할 수 있으며, 유능한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서인식명확성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가 자신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수록 외상 사건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더 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남여명, 박철욱, 2017; 송현, 이영순, 2018; 오혜리, 홍예영, 2018; 이인재, 양난미, 2017; 조한로, 정남운, 2017)과 일치한다. 자신이 느낀 다양한 정서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개인은 외상 사건 경험으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에도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부정적 정서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고통, 불안, 우울 등 외상 사건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는 개인이 그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 역시 얻을 수 있으며, 긍정적 변화에 대한 동기는 곧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대봉(2015)의 연구에서,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해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더 성장한 대학생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밝혔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자녀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낼수록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을 받으며 향상된 정서 인식 능력은 외상 사건 경험 시에도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자녀에게 부정적 상태에서 긍정적 상태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양육이 온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자녀는 의도적 반추를 잘 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자의 긍정적인 대처 조언이 자녀의 의도적 반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ilmer & Gil-Rivas, 2010)와 맥을 같이하며, 자녀가 부모와 형성한 안정적인 애착으로부터 의도적 반추를 하는 작업에 도움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김상근, 이정운, 2019; Zhou et al., 2019)과도 유사하다. 이는 부모의 지지적이고 따뜻한 양육이 자녀의 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부모가 양육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수록 자녀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외상 사건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유익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으로 이르는 과정에 필요함을 밝힌 연구들(김정옥, 윤재호, 2017; 송현, 이영순, 2018; 신선영, 2009; 유희정, 2018; Kilmer & Gil-Rivas, 2010; Munday et al., 2019; Taku et al., 2012; Xu et al., 2019)의 주장을 재증명하는

결과이다. 외상 사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에서도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면 할수록 개인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은 외상 사건 경험으로 인해 붕괴된 기존의 도식을 재구성,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인지적 재평가 혹은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상근, 이정운, 2019; Zhou et al., 2019)와 유사한 맥락이다. 즉, 부모가 온정적인 양육을 제공하였을 때 자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외상 사건의 의미를 찾아내는 건설적인 사고를 더 쉽게 해내며, 이에 따라 긍정적 변화인 외상 후 성장 단계에 도달한다. 그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의도적 반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드물었는데,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이나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도 자녀가 건설적인 의도적 반추를 잘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개인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음에도 극심한 고통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서인식명확성은 긍정적인 상태로의 회복에 대한 동기 발견에 도움을 주고, 의도적 반추는 외상 사건 경험으로 인해 침해된 도식 재건에

필수적인 인지적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따르면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에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 양육 요인이 개인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여 설명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컸고,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능력은 부모가 제공하는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에 영향받아 향상되는 측면이 크지만,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는 부모의 온정 외 다른 측면의 양육 또는 다른 사회적 영향도 필요함을 암시하는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 중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의도적 반추는 사건의 좋은 면을 찾아냄으로써 의식의 변화 및 성장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과정이다. 반면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알아차리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으로, 의도적 반추에 비하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도 성장을 이루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서 인식이 이뤄진 후에 필요한 정서 조절이나 정서표현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명확한 정서 인식과 활발한 의도적 반추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체 결과는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온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현장, 상담 현장, 돌봄 현장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이에 기반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외상 후 성장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고통스러웠다고 지각하는 모든 사건은 외상이 될 수 있다는 점(Tedeschi & Calhoun, 1995)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고통을 경험한 개인이 사건에의 대처 필요성도 느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신선영, 2009)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보통 이상의 고통을 유발한 외상 경험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외상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및 별거나 어린 시절의 학대와 같이 부모와 관련된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들이 나타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질문지 척도 사용의 한계를 지닌다. 특히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도구인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이하 PTGI)는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거의 유일한 척도이지만, PTGI에 대한 한계점은 여러 차례 지

적되었다(Jayawickreme et al., 2018). 응답자는 PTGI 보고를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추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량적 평가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PTGI를 활용한 측정 결과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응답자도 구체적인 프로파일 분석을 해보면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Blackie et al., 2015)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외상 후 성장을 살펴보는 질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더 다양한 도구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사회 환경적 요인(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과 정서적·인지적 요인(정서인식명확성 및 의도적 반추) 간 관계를 규명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과거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사회 환경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만을 살펴보거나,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만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 가지 요인을 함께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자녀의 정서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 그리고 성장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양육이 무엇인지를 논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관련 영역에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성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리 (2018). **외상 후 고통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근, 이정운 (2019).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32, 1-22.
- 김신실, 유금란 (2014). 청소년의 애착유형이 자기 자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 27-45.
- 김정옥, 윤재호 (201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229-252.
- 김혜원, 이지연 (2019).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5, 135-157.
- 남여명, 박철옥 (2017). 외상경험자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3), 23-41.
- 박종수 (2013). **응심리학과 정서**. 서울: 학지사.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 현, 이영순 (2012).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891-910.
- 송 현, 이영순 (2017). 외상 후 성장 과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재활심리연구**, 24(4), 573-591.
- 송 현, 이영순 (2018). 침투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적 자기노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5(4), 603-622.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서영석 (2006). 아동, 청소년 상담: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7(1), 117-130.
- 오혜리, 홍혜영 (2018).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6), 377-393.
- 위대봉 (2015).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또래지지, 정서인식명확성,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구조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2015). 사별 경험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2), 323-339.
- 유희정 (2018). 외상에 따른 고통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9(4), 997-1012.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수정, 이은진 (2002).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지표상 성 차이와 부모-자녀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75-92.
- 이인재, 양남미 (2017). 성인 애착 불안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외상경험을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8(1), 329-348.
- 이지영 (2014). **반추 양식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서 및 인지적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로, 정남운 (2017).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및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433-455.
- 하영자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진선, 김동희, 박정하 (2016).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아버지와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8), 164-171.
- 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ManMag.
- Blackie, L. E., Jayawickreme, E., Helzer, E. G., Forgeard, M. J., & Roepke, A. M. (2015). Investigating the veracity of self-perceived posttraumatic growth: A profile

- analysis approach to corrobora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7), 788-796.
- Bodkin, J. A., Pope, H. G., Detke, M. J., & Hudson, J. I. (2007). Is PTSD caused by traumatic stres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2), 176-182.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of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An expanded framework.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3-23.
- Caruso, D. R., Salovey, P., Brackett, M., & Mayer, J. D. (2015). The ability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romoting human flourishing in work, health, education, and everyday life*, 545-558.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1412-1423.
- Fosha, D. E., Siegel, D. J., & Solomon, M. F. (2009).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Affective neuroscience, *development & clinical practice*. WW Norton & Company.
- Frazier, P., Anders, S., Perera, S., Tomich, P., Tennen, H., Park, C., & Tashiro, T. (2009). Traumatic events among undergraduates stud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450-460.
- Goldman, S. L., Kraemer, D. T., & Salovey, P. (1996).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2), 115-128.
- Greenberg, L. S. (2002). Integrating an emotion-focused approach to treatment into psychotherapy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2), 154-189.
- Jayawickreme, E., Rivers, J., & Rauthmann, J. M. (2018). Do we know how adversity impacts human development?.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5(3-4), 294-316.
- Kilmer, R. P., & Gil-Rivas, V. (2010). Exploring posttraumatic growth in children impacted by Hurricane Katrina: Correlates of the phenomenon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Child development*, 81(4), 1211-1227.
- Koehn, A. J., & Kerns, K. A. (2018). Parent-child attachment: Meta-analysis of

- associations with parenting behavior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0(4), 378-405.
- Gold, S. D., Marx, B. P., Soler-Baillo, J. M., & Sloan, D. M. (2005). Is life stress more traumatic than traumatic stres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6), 687-698.
- Goldman, S. L., Kraemer, D. T., & Salovey, P. (1996).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2), 115-128.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1), 41-48.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04.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143-165.
- Rider Munday, K., Nicholas, D., Kruczek, T., Tschopp, M., & Bolin, J. (2019).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cancer: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management of intrusive rumination, and goal disengagement as mediated by deliberate rumination.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37(4), 456-477.
- Robinson, J. S., & Larson, C. (2010). Are traumatic events necessary to elicit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2), 71-76.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 health*, 125-154.
- Saul, L. J. (1979).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and maturit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 Sheikh, A. I. (2004). A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coping.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61-1173.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 the aftermath of suffering.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Weiss, T. (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2), 65-80.
- Wolchik, S. A., Coxe, S., Tein, J. Y., Sandler, I. N., & Ayers, T. S. (2009). Six-year longitudinal predi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in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58*(2), 107-128.
- Xu, W., Jiang, H., Zhou, Y., Zhou, L., & Fu, H. (2019). Intrusiv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after a tornado: the role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7*(3), 152-156.
- Yuan, G., Goh, P. H., Xu, W., & An, Y. (2018).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s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osttraumatic growth and resilience in adolescents following the Yancheng tornado.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7*(6), 631-644.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 Zhou, X., Zhen, R., & Wu, X. (2019). How does parental attachment contribute to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following an earthquake? Testing a multiple media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0*(1), 1605280.

The Effects of Warm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Deliberate Rumination

Chan-Eun So¹

Sae-Young Han²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ter's degree¹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deliberate rumination on relations between warm parenting and posttraumatic growth. This study surveyed 316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traum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arm parenting had a significant relation with posttraumatic growth. Children who perceived parents to be warm showed higher posttraumatic growth. Second, emotional clarity mediated relations between warm parenting and posttraumatic growth. Children who perceived parents to be warm had higher emotional clarity and posttraumatic growth. Lastly, deliberate rumination mediated relations between warm parenting and posttraumatic growth. Children who perceived parents to be warm had higher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is study suggests warm parenting is important for the children's posttraumatic growth. This results provide basic data to understand individual's posttraumatic growth.

Keywords : Posttraumatic growth, Warm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Clarity, Deliberate rumination